





서울 롯데본점 / 롯데소엄점 / 롯데노완점 / 롯데마아점 / 롯데리포점 / 현대미아점 / 신세계강남점 / 마리오아울렛구로점 / 도곡점 / 문정점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 아이즈빌점 경기 롯데중동점 / 신세계의정부점 / 롯데프리미엄아울렛광명점 /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고양점 / 롯데프리미엄아울렛기흥점 /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 모다아울렛곤지암점 / 일산덕이점 / 안망평촌자점 / 수원영통점 / 안산한대점 / 시화점 / 남양주산배점 / 포션승우점 / 축전점 김펀도 4K출라자원주점 / 동해경 총청 신세계총창점 / 세이대전점 / 신세계스타일마켓대전점 / 모다아울렛대전점 / 갤러리아타임월드점 / 천안병용점 / 청주울량점 경상 롯데대구상인점 / 현대부산점 / 신세계센템점 / 모다아올렛대주집 / 모다아울렛공산점 / 모다아울렛경주점 / 사상터미발점 / 갤러리아진주점 / 진주정촌점 / 칠곡세른밸리점 / 대구성서점 / 포항점 / 부산녹산점 전라 모다아울렛순천점 / 순천연항점 / 광주상무지점 / 광주세정점 / 군산점 제주 제주노형점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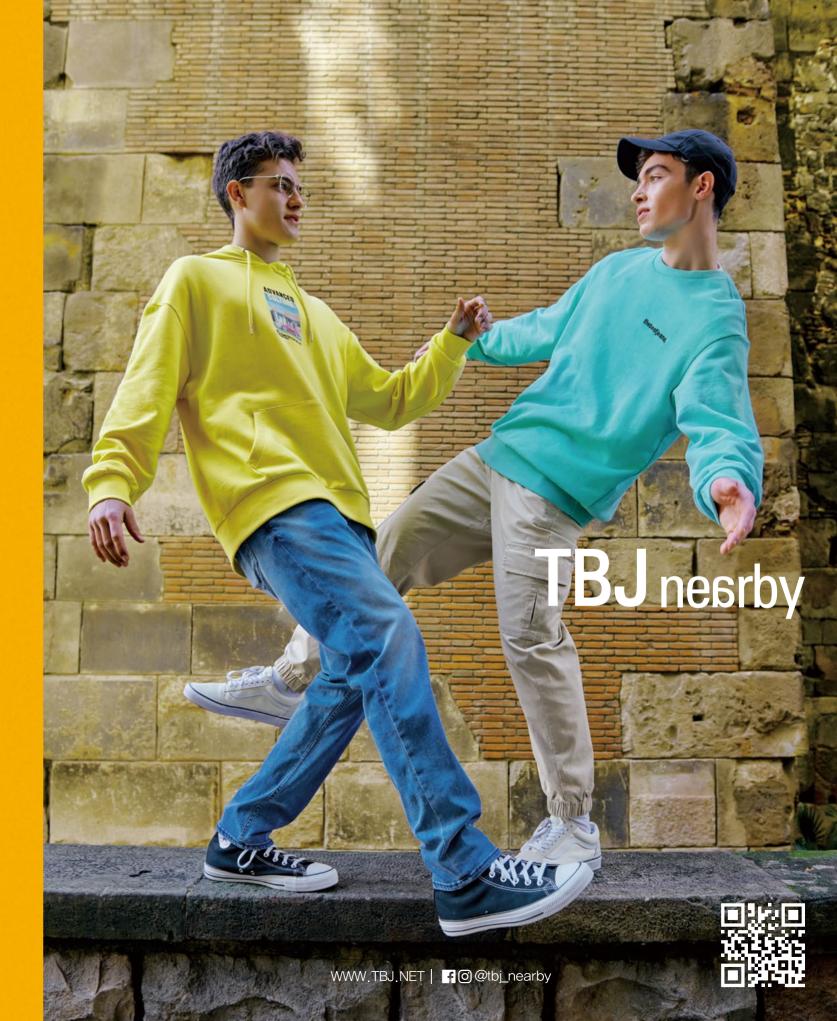
























1 동아전과

2 백점시리즈

3 큐브수학S시리즈

4 하이탑 초등 과학



공부가 즐거워지는 | **조등 참고서** _ |





6 초능력 맞춤법+받아쓰기/급수 한자

7 초능력 국어 독해





8 초능력 수학 연산



9 비주얼씽킹 한국사/과학







🤍 초등 과목별 학습 교재

- 1 집에서 보는 교과서 **동아전과**
- **2** 강의가 더해진 **백점시리즈**
- **3** 수준별 초등 수학 전문서 **큐브수학S 시리즈**
- 4 믿고 보는 초등 과학 개념서 **하이탑 초등 과학**
- 5 학교 시험 완벽 대비 **백점 단원평가**

■ 기초 학습 능력 강화 시리즈

- 6 초등 저학년을 위한 초능력 맞춤법+받이쓰기/급수 한자 7 국어 독해와 어휘를 한 번에! 초능력 국어 독해
- 8 바른 계산, 빠른 연산! 초**능력 수학 연산**
- **9** 그림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비주얼씽킹 한국사/과학

■ 초등 고학년 필수 시리즈

- 10 국어 영역별 기본서 초고필 국어 독해/문법/어휘
- 11 중학 수학 기초 학습서 초고필 수학 유리수의 사칙연산/방정식/도형의 각도
- 12 깊이 있는 역사 공부 **초고필 한국사**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22 SPRING

COVER STORY



부드러운 바람, 여기저기 수 놓인 화사한 빛깔. 봄이 아름 다운 이유는 꽃 때문만은 아 니다. 겨우내 덮어뒀던 후회 와 슬픔이 날이 풀리자 싹을 틔운다. 꽃이 피기까지 겪어 온 시간이 있기에 이 계절은 더 다정하다. 열심히 추위를 지나온 우리, 따스한 봄 햇살 을 더없이 만끽하기를.

발행일: 2020년 03월 16일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배연호

인쇄: 동이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예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경운박물관에 발전 기금 기부

SPRING THEME WE ARE GROWING			
경자년 특집 인터뷰 올해는 우리 함께 꽃길만 걷쥐!	18	글로벌 인재 양성 한세예스24문화재단, 11개국 유학생에 장하금 전달	53
한세실업의 새 광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세실업 새로운 광고를 소개합니다	22	신년 맞이 기부 바자회 예스24 , 배우 김혜윤과 함께하는 2020년 신년 맞이 기부 바자회 개최	54
별별업무탐방 눈부신 필드, '무대 뒤' 체질의 이야기	24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소중한 고객의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캐릭터 콜라보 한세와 만난 캐릭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28	제7회 한세드림 시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맛집 소개	56
동호회를 가다 함께의 편안함, FC MK팀의 기분 좋은 드리블	32	정인면옥 헤어날 수 없는 맛, 슴슴함의 매력	58
2019 올해의 책 선정 결과 독자들이 선택한 책, 책, 책	34	책읽아웃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귀찮은 집안일 다시 보는 법	60
골프 스타일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 선수들과의 시너지 한층 높인다!	38	문화多방 나를 녹이는 문화 감성	62
패션 화보 버거루, 리스본 거리를 물들이다	00	동이출판 신간을 소개합니다 〈동아 연세 초등 국어사전〉 최신 개정판 출간 外	64
배우 배정남과 함께한 봄 패션 화보	40	간식시간 봄을 닮은 상큼한 간식 과일 샌드위치	66
당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구층책방'의 도서 모음	42	당신의 심리 유선의 기자의 '독서 취향 테스트'	68
베트남 법인 대규모 축제 성료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서 화합 대축제 임직원·기족 4만 명 모이는 연례행사로 주목	46	2020 자동차 트렌드 나날이 발전하는 자동차, 어떤 걸 선택할까?	69
미 안마 띨라와 법인 착공식 미안마 법인 착공식 성료 거장 스티븐 홀 거축 설계 참여	48	메뉴 설명서 레스토랑 메뉴판 암호 풀기	70
한세실업 신입사원 베트남 연수 한세의 인재, 세계를 향한 첫걸음	50	우리말 바로 쓰기 '상가 추태'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일까? 겹말의 두 얼굴	71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한세일보 한세 봄호 계열사 소식	72

52

We are growing



새해맞이 계획들, 준비는 호기롭게 하지만 실천은 어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이늑한 현실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목표 없는 삶은 무기력함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첫 출발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진정한 목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올해는 우리 함께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풍요와 근면을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쥐띠 임직원과의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다. 개인의 고민과 다짐을 안고 등장한 한세의 쥐띠 5인방! 함께하는 훈훈한 분위기에 웃음꽃이 절로 피어났다.







2020 경자년 쥐띠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박숙경: 평소에 쥐띠인 걸 크게 의식하지 않아서 특별할 게 있나 싶었는데, 연초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겼어요. 경자년의 좋은 기운이 들어온 덕분이라 여기고 연말까지 쭉 잘 지내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양소영: 지난 쥐띠 해 때는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지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조승연: 성인이 되어 처음 맞는 쥐띠 해예요. 이전 쥐띠 해와 비교해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디자인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요. 12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 해를 살아야겠어요.

쥐띠인 우리, 성격도 모두 비슷할까요?

문정윤: 친구들은 제 성격을 '열정'과 '긍정'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매사에 열정을 다하는 성격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이러한 면이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 것 같아요. 박숙경: 평소 조용한 편이라 모임에선 말하기 보단 듣는 쪽이에요.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관심사가 빠르게 바뀌지만, 그만큼 결정이 빠르고 지나간 일엔 미련을 두지 않아요. 저도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정아: 저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종종 활달하고 대범하게 변하기도 해요.

2020년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박숙경: 가족,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해가 갈수록 건강 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어요. 양소영: 지금 몸담고 있는 한세드림 수입사업팀 브랜드들이 계속 매출을 신장하고, 매장도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일은 바빠도 성장하는 브랜드를 보면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승연: 저는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회사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쌓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또요즘 회사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1 | 예스24 도서사업본부 도서2팀 박숙경 대리 2 | 한세드림 수입사업부 VMD팀 양소영 대리 세대가 다른 쥐띠들, 요즘 어떤 이슈·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문정윤: 이제 막 시작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이후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 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학생 때와는 180도 다른 지금의 삶이 여전히 새롭거든요.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니 앞으로의 인생도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조승연: 저도 마찬 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회 생활에 관한 책도 읽어 보고 있습니다.

이정아: 저는 앞으로 5년 후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모습일지가 궁금하고 기대돼요. <mark>양소영</mark>: 결혼 후 내 삶이 아이와 가족 중심이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민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인생에서 내가 점점 사라진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볼까생각 중이에요.

지때 해를 맞이하는 2020년의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박숙경: 지치지 않고, 작년보다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문정윤: 2020년은 사회인으로서 제 삶의 전환점 같은 해에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정아: 2020년에는 더욱 더 전문적인 패턴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양소영: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건강 관리에 힘쓰고, 업무도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승연: 새 마음가짐으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쥐띠 동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양소영: 저와 같은 나이라면 각자 업무에서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껏 그래 왔듯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격려하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 쥐띠 친구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조금 더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박숙경: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문정운: 쥐띠 해인 만큼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아: 쥐띠 동료분들! 올 한해도 반짝반짝 빛나시길바라요. 같이 발전합시다. 조승연: 의미 있는 한해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1| 한세실업 R&D본부 디자인8팀 조승연 주임
- 2 | 동아출판 창의2실 사회팀 문정윤 인턴
- 3| 한세엠케이 패턴개발실 이정아 대리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세실업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와 비전을 그려냅니다. 새롭게 바뀐 광고 속에 한세의 위상과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광고를 소개합니다

한세실업의 광고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미국인 ○명 중 1명은 한세실업 옷 을 입습니다.' 한세실업 하면 이 카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 광고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한세실업을 알리고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 했습니다. 하지만 한세실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새로운 광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 다. 더 이상 미국인 중 몇 명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 문이죠, 실제로 한세실업은 최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글로벌 활약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한 끝에, 세계지도 위에 모든 한세실업 법인의 위치를 표기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덕분에 더 직관 적으로 한세실업의 위상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새 광고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세계지도 입니다. 실제 지구상의 면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패터슨 도법'의 지도라 우리 눈에 익숙한 '메 르카토르 도법' 지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터슨 도법을 차용해, 세계를 왜곡 없이 보자는 의미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경제적 영토를 넓히고 있는 한세실업의 활약상을 표현했습니 다. 또 하단 카피를 통해 국내외 한세 계열사와 법인의 노력으로 '2019년 기준, 패션 부문 매 출 2조 1,000억 원'을 달성한 것도 조명하였습니다. 이번 광고를 통해 한세가족 여러분이 한 세실업에 대해 더 알아기고, 지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광고는 조선일보, 동아일 보등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영자지, 주간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의 패션문화를 선도합니다.



한세는 국내 4개 계열사, 해외 20개 법인을 통해 2019년 기준 패션 부문 매출 2조1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한세실업, 한세 VN, 한세 TN, 한세 TC, 한세 호찌만, 한세 하노이, 한세 다당 오피스, 한세 전터 오피스,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 보민 페르미타 아버디, 한세 인도네시아 수케스, 한세 스마랑 오피스, 한세 인타내셔널, 한세 피놀라, 한세 글로벌, 모다스 B.I. 어패컬, 한세 아이티, 미인마 어야와디, 한세 미안마, 어패럴 매뉴팩처링 파트너스, 한세 뉴욕 디자인 센터, 한세 벤톤빌 오피스, EDIT by (디자인 스튜디오), 칼라앤터치 C&T VINA, C&T G-TECH 1 한세엔케이 단쿤(상하이)상무유한공사 | 한세드림 카아이슈푸시(상하이)유한공사





한세엠케이 골프마케팅 이원필 과장

화려한 공연일수록 무대 뒤쪽은 더 바쁘게 돌아가는 법이다. 관심이 쏟아지는 골프 세계, 그 이면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여기에 있다. 누구보다도 골프와 선수, 브랜드에 애정을 쏟으면서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남자, 이원필 과장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부터 근무 중인 한세엠케이 패션3본부 골프마케팅팀 이원 필입니다. PGA TOUR와 LPGA골프웨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후원 선 수관련업무,이벤트프로모션,협찬/PPL,사은품관련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골프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 졸업반 때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 서 인턴십을 한 것도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 골프 대회의 운영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배웠는데, 그때 환호를 받는 선수나 드라마틱한 승부 이면에 '무대 뒤'가 있음을 알게 됐죠. 화려하진 않지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 신선한 매력을 느 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내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우리 선수와 브랜드 그리고 우리 옷이 돋보일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이야 깃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후원 선수로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현재 여자 8명, 남자 4명으로 총 12명의 프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프로, KLPGA 역대 누적 상 금 1위 장하나 프로 그리고 지난해 KLPGA 3승을 기록한 슈퍼 루키 임희정 프로 도 있습니다. 올해부턴 남자 선수도 후원하게 되면서, 미국 PGA투어에서 활약하 고 있는 김시우 프로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 커리어를 확인합니다. 신인 선수의 경우엔 아마추어 때의 기록을 참고합니다.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 '좋은 옷이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와 같은 퍼포먼스 골프웨어의 아이덴티티에 적합하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여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매력입니다. 성적, 비주얼, 플레이 스타일, 쇼맨십, 성격 등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서로 생각하는 조건이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선수들과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후원 선수 중에 사라 제인 스미스(Sarah Jane Smith)라는 호주 선수가 있는데, 작년 시즌 중에 출산을 했어요. 매번 SNS로 대화를 할 때마다 아기 사진을 보내줍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국적도 다른 선수와 정이 쌓여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도 가족 사진을 보내왔어요. 후원 선수가 행복하게 투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흐뭇합니다.

한세 골프대회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나요?

한국여자프로골프 2부 투어 중. 한세예스24홀딩스가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대회를 기획하고 현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도 없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없지만 선수들 모두 수험생의 마음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또하나의 원석을 찾으려는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정보 공유도 있습니다. 대회장에 갈 때마다 이런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수 있어 좋습니다.







올해 예정된 이벤트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선수의 인원은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남자 선수의 합류로 좀 더 폭넓은 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선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인회, 레슨 이벤트 같이 일반 골퍼와 만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같은 새로운 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업무 중, 가장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브랜드와 후원 선수의 위상이 달라지는 걸 느낄 때 신기하면서 뿌듯합니다. LPGA골프웨어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설명부터 해야 하는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꽤 많은 선수들에게 먼저 후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LPGA 신인이던 고진영 프로가 1년 반만에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얼마 전까지 아마추어였던 임희정 프로도 좋은 활약 덕에 팬들과 사인회를 했어요. 선수들에게 "많이 컸다 ~" 우스갯소리를 하는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이런 시그널이 지속되어서 앞으로도 우리 브랜드 매출과 인지도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장 어렵거나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요?

서로의 사정으로 후원하던 선수와의 계약을 종료해야할 때가 어렵습니다. 물론 선수 후원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아무리 겪어도 적응하기 힘든 일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반응을 보이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스토브리그는 새로운 선수 영입의 성취감만큼이나 아쉬움과 어려움도 큰 시기입니다.

실제 골프 실력은 어떠신가요? 나만의 골프 팁도 알려주세요.

필드에서는 평균 110~120타 정도 치는데, 그마저도 요즘엔 뜸했던 터라 스코어가 더 안 좋아졌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스크린 골 프에 빠져서 몇 시간씩 연습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저는 '무대 뒤' 체질인가 싶습니다. 기술적인 팁은 없지만, 업무차 많은 골프장을 다니다 보니 저렴하고 맛있는 직원 식당이 있는 골프장은 여럿 알고 있어요. 비싼 클럽하우스 레스토 랑 밥값을 절약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팁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 웃으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GA TOUR & LPGA골프웨어 많이 응원해주세요.

CHARACTERS

RATION

캐릭터의 인기와 브랜드의 신뢰가 만나 좋은 제품으로 탄생했다. 행복한 콜라보에 덕심은 지칠 시간이 없다. 이번엔 어떤 변신을 했을까? 캐릭터를 사랑하는 팬들은 주목! 어린이는 물론 어른이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들의 매력을 한세 속에서 찾아보자.

> 한세와 만난 캐릭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u>펭하! 대세 캐릭터와의 만남</u> 예스24 X 펭수

펭수의 매력에 사랑스러움을 더하다.

3시간 만에 판매량 1만 부를 돌파한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의 저자 크리에이터 펭수! 예스24에서 구매고객 대상으로 증정된 펭수 굿즈는 스프링 노트, 스마트 그립, 8종으로 구성된 실사 마그넷이다. 기존 실사를 캐릭터 그림으로 더 아기자기하게 표현, 실용성 있는 굿즈에 귀여움을 더했다. 실사 이미지와 명대사를 녹여낸 마그넷으로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았다.







오랜 사랑을 받은 브랜드와 시리즈의 만남 리바이스키즈 X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리바이스만의 쿨한 감성으로 풀어내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안드로이드 티셔츠, 스톰트로퍼 후디, 갤럭시 로고 후디, 츄바카 티셔츠로 구성됐다. 츄바카, R2-D2, C-3PO 등 스타워즈의 시그니처 캐릭터와 네온 컬러의 리바이스 배트윙 로고를 활용한 전면 그래픽 등이 유니크한 느낌을 선사한다. 여기에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은 우주 관련 레터링을 어깨선을 따라 날염해. 트렌디한 감각을 극대화했다.





BUCKAROO

<u>디즈니 대표 캐릭터와의 만남</u> <u>버커루(BUCKAROO) X 미키마우스</u>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버커루의 빈티지 감성을 만나 재탄생하다.

라운드넥 티셔츠, 맨투맨, 후드풀오버 등 베이직한 캐주얼룩 연출이 가능한 5가지의 다채로운 스타일로 구성된 라인업. 고급스러운 터치감과 캐릭터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살린 아트웍 포인트로 개성을 더하고, 군더더기었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컬러로 구성해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냈다.







팀플레이 스포츠는 나 하나가 아닌 '우리'를 인식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건 운동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동료를 배려하며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 젊은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한세엠케이의 축구 동호회 FC MK와 즐거운 '놀이' 시간을 함께했다.

함께의 편안함,

FC MK팀의 기분 좋은 드리블



한세엠케이 축구 동호회의 탄생은 직장에서 건강과 취미를 챙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2018년 10월,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같은 뜻을 공유한 채 소소하게 모이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스포츠인 축구. 그만큼 개인이 소화할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에, 초반엔 인원 부족을 이유로 활동에 애로 사항도 많았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FC MK는 회원 수가 늘어난 만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며호탕한 웃음을 전했다.

동호회는 한 달에 한 번 2시간 운동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주로 아외구장에 모이지만 여건이 어려울 땐 실내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분기별로 다른 패션 회사의 축구팀과 친선 경기도 하고 있다. 이런 정기모임 외에도, 마음 맞는 직원이 있다면 주말에 만나 운동하는 경우도 있다. FC MK 동호회에는 15명의 정식 멤버가 있지만, 사실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팀원들은 답한다. 일정만 맞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게스트 참여를 유도해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멤버별로 따로 포지션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정한 포지션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이들은 함께 뛰고 있다.

"저희는 단순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즐겁 고 건강한 운동을 우선순위로 삼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부족하 다는 뜻은 아니다. 팀의 에이스인 마케팅팀 이원필 과장과 생산팀 이우람 주임 덕이 크다. 축구에 대한 이해가 깊고, 몸놀림이 빨라 경기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들이다. 실제로 다른 회사와의 시합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두 분이 회원들 개개인에 맞는 코칭을 해주는 덕분에 실력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중이에요." 팀원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에너자이저도 있다. "에너지 넘치는 축구 동호회입니다. 놀러 오세요!" 영업팀의 권영훈 대리는체력이 좋아 두 시간 내내 지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듯, FC MK의 자랑거리는 팀워크다. 회원들은 경기 중 일어 나는 일에 대해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싸주고 응원한다. 경기에 질 때 속상한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함께하는 팀원을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다 괜찮아요." 이런 마인드 덕분인지 동호회를 향한 회원들의 애정도 남다르다. FC MK의 유니폼은 그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모든 멤버가 참여한 결과물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회원들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단체 축구화 제작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명 한 명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FC MK팀,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공과 함께 달린다.





Soccer



우리 동호회 자랑 한 마디

영업팀 이종훈 과장: 좋아하는 취미가 같아 직원들 간의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덕분에 업 무 진행 때도 서로 잘 협조할 수 있어요.

회계팀 이상상 주임: 건강도 챙기고 타 부서 와 교류하면서 서로의 업무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동호회입니다.

생산팀 이우람 주임: 편안한 분위기, 좋은 매 너가 우리 동호회의 자랑입니다.



예스24가 11월 약 한 달간 진행한 2019년 '올해의 책'과 '올해의 커버'를 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실패한 여행을 문득 떠올리고, 그 실패가 자신에 뽑는 온라인 투표에서, 독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 1위에 (여행의 이유)가. 올해의 커버 1위에는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가 선정됐다. 이번 투 로 다행이구나, 이 책은 많이 읽히기도 하지만, 깊이 이해받고 있구나.' 싶 표 이벤트에는 총 295,003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올해의 책 1위에 선정된 김영하 작가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는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7,945표(9,5%)를 획득하며 독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여행의 소설. 시·에세이, 인문·교양, 경제경영, 자기계발, 유·아동·청소년, 가정· 한 해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도서다.

김영하 작가는 "올해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라며 "흔히들 책은 책으로 뽑히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자가 쓰지만, 독자의 독서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많은 독자

게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아, 참으 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만들어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유〉는 2019년 예스24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1위에 등극할 만큼, 취미·실용, 만화·예술 등 8개 분야 232권 가운데 총 24권이 2019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며, 에세이와 인문·교양 분야 도서가 각각 5종씩 올해의



수상 도서 리스트(24종)





여행의 이유 27,945 (9.5%)



박막례. 이대로죽을 순없다 박막례 김유라 25.089 (8.5%)



90년생이온다 24,483 (8.3%)



유럽도시 기행1 20,248 (6.9%)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18,022 (6.1%)

김보라외 4명 공저 17,68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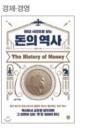
인문·교양



설민석의 삼국지1 16,896 (5.7%)



오은영의 화해 우은영 16,676 (5.7%)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16,618 (5.6%)



선량한 차별주의자 긴지혜 16,229 (5.5%)



15,515 (5.3%)



수미네 반찬1리커버판 김수미 외 4명 공저 15,184 (5.1%)

자기계발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어 로먼 겔페린 15,121 (5.1%)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15,070 (5.1%)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 14,685 (5%)



막세스 역사의 쓸모 셀레스트 헤들리 14,525 (4.9%)



14,360 (4.9%)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14,268 (4.8%)



연의 편지 **조형아** 14,262 (4.8%)



핵을 들고 도망친 101 세노인 요나스 요나손 14.114 (4.8%)



시-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 니다 김하나,황선우 13,910 (4.7%)



유아동·청소년

흔한남매1 흔한남매, 백난도 글/유난희그림 13,516 (4.6%)



아가씨와 밤 기욤뮈소 13,347 (4.5%)



천년의 질문 1 조정래 13,218 (4.5%)



2019 '올해의 커버'

수상 도서 리스트(12종)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김유라 29,259 (11.6%)



선량한 차별주의자 24,445 (9.7%)



여행의 이유 23,551 (9.3%)



내가보여? 21,685 (8.6%)



90년생이온다 19,933 (7.9%)



우리 나무 이름 사전 18,688 (7.4%)



혼자가혼자에게 18,294 (7.2%)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해도 알아 18,042 (7.1%)



비와 별이 내리는 밤 메이브 빈치 17,247 (6.8%)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황선우 16,290 (6.4%)



기욤뮈소 15,288 (6%)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14,555 (5.8%)

이와 함께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및 예스24 MD의 추천을 받은 64권의 책 표지 중 참신한 시도와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올해의 커버'를 뽑는 투표에서는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가 29,259표(11.6%)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커버는 J. 하워드 밀러의 포스터 (We can do it)를 패러디하여 박막례 할머니의 힘겨운 인생을 버티게 한 강한 파워와 인내심, 끈기를 담아냈다.

예스24, 보안여관에서 '올해의 책'과 함께 즐기는 이색 전시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책을 테마로 한 이색 전시회 'YES24 북 스테이 -책과 머문 하루'가 열렸다. 전시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안여관으로, 한국 최초의 문학 동인지 〈 시인부락〉이 시작된 곳이다. 이번 전시회는 예스24의 2019 올해의 책 24권과 올해의 커버 12권을 선보이 고, 책과 관련된 색다른 경험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지하 2층과 1, 2, 4 층 총 4개 층에서 올해의 책/커버 전시를 포함해 '책이 깊어지는 향', '책이 즐거워지는 소리', '책이 익어가 는 맛', '책과 머문 하루' 등의 테마로 다양한 감각을 책과 연결시킨 특별한 체험 공간이 운영됐다. 지하 2 층 보안클럽에서는 빛과 소리를 통해 2019올해의 책과 문장을 소개하며 색다른 감상 기회를 제공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방의 드로잉 클래스를 비롯해 물리학자 김상욱, 작가 이슬아,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 독과의 북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상 1층에 위치한 33마켓에서는 따뜻한 차 한잔. 가벼운 잔술 한잔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서명을 활용한 재치 있는 메뉴도 소개됐다. 윤동주 시인 을 오마주한 향기가 가득한 2층 공간에서는 창밖의 경복궁을 배경으로 올해의 책과 커버를 감상할 수 있 었다. 이 밖에도, 경복궁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숙박 공간 보안스테이에서는 초대 이벤트를 통해 선정 된 약 120명의 독자가 행사 기간 동안 1박 2일간 책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북스테이'의 기회도 제공됐다.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

선수들과의 시너지 한층 높인다!







한세엠케이의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2020년 시즌 후원 선수 12명을 공개했다. 기대되는 프로들의 활약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의 위상에는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난 시즌 후원선수 도 합 11승, 누적 14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국내 대표 패션기 업 한세엠케이의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 프웨어'의 2020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올해 후원 선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9 시 즌 대기록의 아성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골프 위상을 높이는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선수로는 지난 시즌 5승을 달성한 세계 랭킹 1 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해 전지원 선수 등이 함께하며 한국여 자프로골프(KLPGA)의 장하나, 임희정, 이승연, 허다빈 등의 선수들이 우승 타이틀을 정조준한다. 올해 새롭게 후원 협약 을 체결한 미국프로골프(PGA TOUR)의 김시우 선수와 한국 프로골프(KPGA) 김대현 등의 선수들도 특급 활약을 예고하 고 있다. 이로써 총 12명의 선수가 PGA TOUR & LPGA 골프 웨어를 입고 2020년 시즌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고진영, 임희정, 김시우, 김대현 프로가 출연한 2020년 S/S TV CF 반응 역시 뜨거웠다. '좋은 옷이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는 브 랜드 슬로건처럼 또 한 번 우승룩으로서 자리매김할지 기대 를 모으고 있다.

LPGA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퍼포먼스 기능을 한층 강화 한 2020 뉴 라인업으로 후원 선수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라인업은 땀을 빠르게 흡수해 건조시켜 쾌적함을 제공 하며 통기성, UV차단에 최적화된 소재를 사용한 것은 물론, 우수한 스트래치 소재로 활동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미세 먼지까지 막아주는 보호 기능을 더해 명실상부 퍼포먼스 골 프웨어로서의 타이틀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지난해 뛰어난 성적 을 기록한 우리 선수들은 자사 제품의 우수한 기능성에 하나 같이 입을 모아 극찬했다"며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답게 퍼 포먼스 기능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0 뉴 라인업은 올 시즌 선수들의 경기 컨디션과 집중력을 끌어 올려주는 핵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라이 프 스타일 웨어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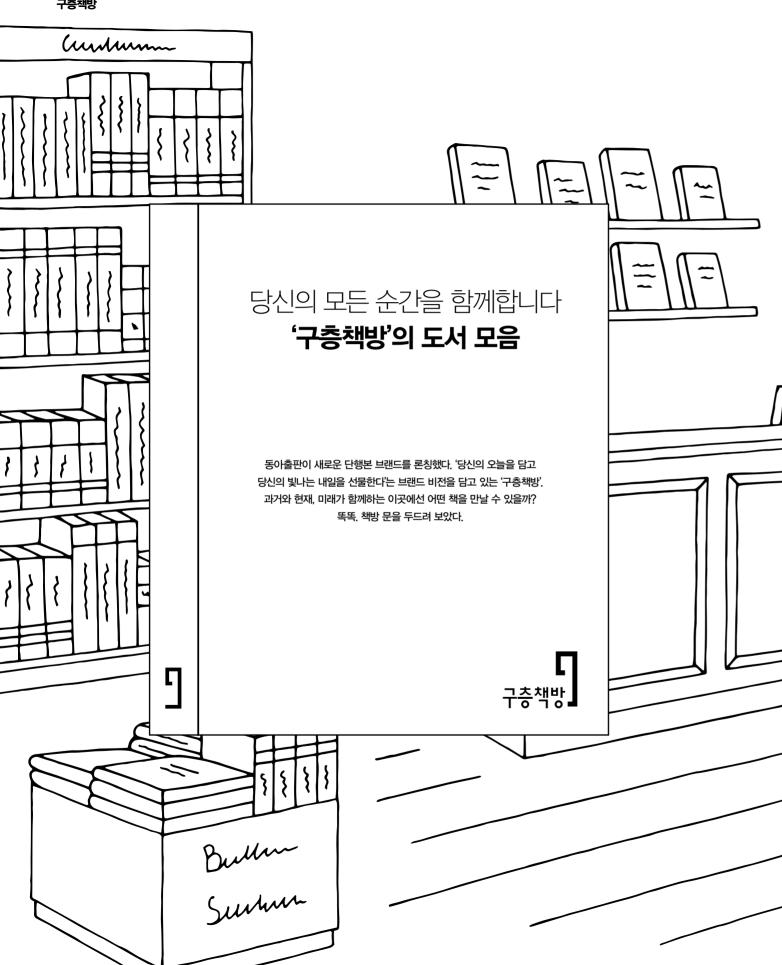






화보 속 배정남은 특유의 아우라로 자유분방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화보를 완성해냈다. 특히, '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 '데님'을 활용한 청청 패션부터, 봄 데일리 아이템으로 손꼽힐 만한 다채로운 아우터 제품들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연출해냈다. 버커루만의 핸드크래프트 워싱을 살린 프리미엄 라인의 데님 셔츠와 팬츠로 데님 룩의 정석을 보여주는가 하면, 루즈핏 아상과 후드 점퍼 등의 아우터들로 남자 봄 코디를 제안하기도 했다. 로맨틱한 리스본 거리와 모델의 독보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흡입력 있는 장면이 연출돼, 현장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찬사가 쏟아졌다. 버커루 관계자는 "배정남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델 포스가 버커루의 모던 빈티지 무드를만나 감각적인 화보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봄, 화보 속 배정남의 패션을 참고하여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배정남과 버커루가 함께한 화보는 '그라치아' 3월호와 공식 SNS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교감

샘 해밍턴, 「샘 해밍턴의 하루 5분 아빠랜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달려와서 반겨준다. 온종일 보고 싶어서 눈에 어른거렸지만, 막상 아이를 마주하니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막막하 다. 무엇을 가지고 놀아줘야 하는지, 어떤 것이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놀이 인지. 무엇보다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지도 고민 이다. 이러한 아빠들의 고민을 품어주기 위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대표 이빠, 샘 해밍턴이 저자로 돌아왔다. '구층책방'의 첫 책으로 탄생한 「샘 해밍턴의 하루 5분 아빠랜드」는 그의 경험과 고민이 생생하게 담긴 육 아 가이드북으로 아빠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법을 안내한다. 놀이 전문가,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솔루션도 담겨 있어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초보 부부 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지난 1월 11일에 진행된 도서 강연회에서 샘 해밍턴은 직접 출간의 이유를 밝혔다.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를 고민하던 중, 평생 간직할 수 있 는 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꿈꾸게 되었죠. 마침 (슈퍼맨이 돌 아왔다)에 출연하고 있어 육아서를 발간하기 더욱 수월했습니다." 강연회 참석자가 육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자. "육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직접 육아를 하면서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설득이 안 될 수 있으니, 스토리텔링을 하며 아이들 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때는 육아 초보였으나 지금은 남다른 육이법으로 인정받는 샘 해밍턴.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또 다른 육아 노하우를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샘 해밍턴의 하루 5분 아빠랜드」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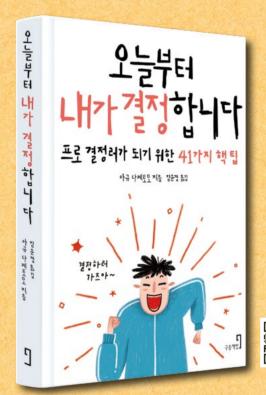




프로 결정러가 되기 위한 41가지 핵 립!

야규 다케토모, 『오늘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出光片漫对的广节证明量的型剂行》





사람은 누구나 '왜 우리는 결정을 할 때 망설이게 될까? 결정한 후 행동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란 고민에 휩싸인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는 비법서 「오늘부터 내가 결정합니다」가 출간됐다. 새해를 맞아 세상에 나온 이 책엔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녹아있다. 결정을 위한 41 가지의 탑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대조와 비유, 우화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설명한다. 책의 편집자가 "이 책은 결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만이 아닌, 올바른 결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성공하는 방법까지 담아낸 책입니다."라고 출간 이유를 밝힌 것처럼, 이 책은 결정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행복의 자세도 함께 풀어낸다. 인생의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오늘부터 내가 결정합니다」는 늘 망설여 왔던 사람부터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출퇴근 시간, 여가 시간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신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정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도서로 추천한다.

당신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랍니다

고은지, 『나의 미친 걱정』

"出物门戏机口发比?"





구층책방의 따끈따끈한 에세이 신간은 고은지 작가의 "나의 미친 걱정」이다. 이 책은 일상이 걱정 더미인 저자의 유머러스하면서도 공감되는 걱정 모음집이다. '내 걱정이 그렇게 미쳤나요?'라고 묻고 싶은 마음. 늘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공감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신선한 재미를 안겨준다. 남에게 말하는 순간 소심한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했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의 미친 걱정」은 그러한 걱정을 지나칠 만큼 진 지하게 표현한다. 책을 읽다 보면 슬며시 미소가 떠오르고 묘하게 위로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책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트렌디한 그림들은 독자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걱정 따위는 떨쳐버리라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받는 요즘. 이 책은 걱정하는 자신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퇴근 후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이여, 귀여운 걱정 모음집을 한번 펼쳐 보래!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서 화합 대축제

임직원·가족 4만 명 모이는 연례행사로 주목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에 임직원과 가족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다. 한세실업은 매년 하반기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화합의 장을 개최한다. 지난 2008년부터 12년 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는 협력과 화합을 목표로 한 사내 체육대회에서 지역 축제로까지 발전했다. 실제로 올해 역시 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 언론이 참석하는 등 한세실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는 11월 23일 TN법인, 11월 30일 VN법인, 12월 7일 TG법인까지 3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각 행사에는 체육대회부터 장기자랑, 현지 인기가수를 초청해 펼치는 화려한 공연까지 풍성한 즐길 거리가 이어졌다. 베트남으로 파견된 한국인 임직원들을 비롯해 현지 임직원 및 가족들을 포함한 약 4만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도모했다.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 현지 직원들이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직원들과의 화합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현지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 김경순 대리)

한세실업은 이를 통해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다지고 있다. 2001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다양한 직원 복지는 물론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가장 일하고 싶은 가족 친화기업(Great Work Place)'으로 꼽히는 등 성공적인 현지 융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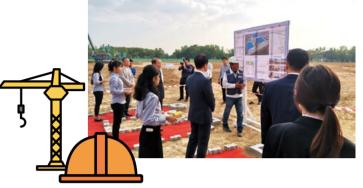
거장 스티븐 홀 건축 설계 참여











한세실업은 지난 12월 11일 미얀마에서 추가 생산 법인 착공식을 성료했다. 이번 착공식은 띨리와 경제특구(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내 공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진행됐다. 설립 규모는 84,248㎡로 총 6개 동이 건설된다. 이날 행사에는 문양원 한세실업 동남아 총괄 본부장, 조성재 한세실업 미얀마 법인장과 전성호 재미얀마한인회 회장 등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패션업계 바이어들도 참석해 한세실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한세실업은 2024년까지 총 84,248㎡ 부지에 2층 건물 3개 동과 메인 사무실 깐틴을 포함, 총 6개 동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중 깐틴 1동과 공장 1개 동은 올해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띨라와 법인의 모든 설비는 한세실업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인 '햄스(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가 갖춰지며, 총 6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시설이 될 예정이다. 특히 설립될 건물 중 하나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인 스티븐 홀(Steven Holl)이 설계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그는 미국 MIT 시먼스 홀, 핀란드 키아스마 현대미술관 등을 대표작으로 하는 건축계의 거장이다. 스티븐 홀의 설계로 미얀마 법인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양원 한세실업 동남아 총괄 본부장은 "한세실업은 미얀마에 생산 법인 확장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효율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3년 미안마에 진출한 한세실업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안마, 니카라과 등 8개국에 23개 법인 및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ODM 전문기업에서 창조적 패션 디자인 기업으로 발돋움 중이다.

한세의 인재, **세계를 향한 첫걸음**

한세실업이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감각을 갖춘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재로서의 시작, 신입사원들이 베트남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2019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의 기간 동안 베트남 해외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의 대상은 근무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된 31명의 신입사원들. 이들은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한세실업의 최대 해외 생산법인인 베트남에서 사업 현황과 현지 문화를 직접 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원들은 먼저 한세실업의 자체 개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인 햄스(HAMS, 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를 체험하였다. 이후에는 C&T VINA 염색 공장, 호치민 영업 오피스를 방문해 원단 제작 등 의류생산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설명을 경청하던 중에 휴대폰, 노트에 메모하는 진지한 사원들의 면모가 돋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관광 시간을 통해 전쟁 박물관, 차이나타운, 티엔허우 사원 등 베트남의 문화를 좀 더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번 베트남 연수는 신입 사원들에게 글로벌 인재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계기로 남았다.





STUDY &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다 글로벌 인재 양성

한세예스24문화재단, 경운박물관에 **발전 기금 기부**







사회공헌 재단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제문화교류전, 국내 최초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번역 사업. 의당학술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2월 30일,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이번엔 근세 복식문화 전문 박물관인 경 운박물관에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영수 한세예스 24문화재단 이사장과 박경자 경운박물관 부관장, 설영자 행정간사 등 박물 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우리나라 복식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경운박물관의 설립 취지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기 획되었다. 2003년에 개관한 경운박물관은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교내에 위 치하고 있으며 현재 조선 왕실 복식 등 약 7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 다. 전문 도슨트와 전문위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 복식을 공 부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다.

이번 전달식에 대해 박경자 경운박물관 부관장은 "경운박물관의 발전을 위 해 큰 결정을 해준 한세예스24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복 식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전통 복식 문화를 통해 세계 문화교 류에 힘을 쓰고 있는 경운박물관과 아시아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뜻이 맞아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경운박물 관이 우리 전통 복식문화의 아름다움을 계속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기부 의 의의를 밝혔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11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11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 11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모였다. 이날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중국, 타지키스탄, 미얀마, 베 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기존 장학생 3명을 포함하여 서류 전형과 2번의 면접 전형을 통해 신규 선발된 10명의 학생까지 총 13명이 참석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한국과 각국의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9년 3월 1학 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한 데 이어 2학기 수여식으로 지난해 두 번의 행사를 성료했다.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 미 등 총 26개 국가 97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 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각국과 경제적 교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미래의 리더들이 졸업 후 한국과 각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책을 나누면서 다정한 마음도 함께 나눠 가진 특별한 현장. 유쾌한 이벤트로 즐거움은 물론 배우 김혜윤의 참석으로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추억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안겨준 예스24의 바자회 현장을 살펴보자.

예스24, 배우 김혜윤과 함께하는 **2020년 신년 맞이 기부 바자회 개최**



1월 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1층 숲모험 놀이터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0 신년 맞이 기부 바자회'가 열렸다. 이번 바자회는 예스24가 제작 협조한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스리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던 중고 도서 중 1만여 권을 나누는 행사였다. 입장료 1천 원을 내면 소지한 기방에 원하는 만큼 도서를 가져갈 수 있고, 입장료는 YES포인트, YES머니 또는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했다. 바자회 수익금 역시 모두 NGO 단체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기부했다.

현장에서는 도서를 담은 가방을 들고 다섯 걸음을 걷는 '다섯발자국 이벤트'가 진행 됐다. 다섯 걸음을 걷는 데 성공한 참가자 중 가장 많은 도서를 담은 1등에게는 크레 마 카르타 G와 북클럽 1년 이용권을, 2~5등에게는 북클럽 이용권을 증정했다. 남성 참가자의 경우 72,20kg, 여성 참가자의 경우는 48,78kg로 1등을 기록하며 이벤트 참가에 열의를 보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주인공 '은단오' 역을 맡았던 배우 김 혜윤이 직접 바자회에 참석했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팬들은 배우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벤트 페이지에 '2020년에 할 착한 일'을 댓글로 달면, 댓글의 개수가 2,020개가 넘는 경우 예스24가 지역 도서 관에 도서 2만 권을 기부하는 이색 이벤트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댓글을 남긴 독자 20명에게는 YES포인트 2,020원이 지급됐다.





소중한 고객의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제7회 한세드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불을 옮긴다고 그 뜨거움이 약해지는 게 아니듯,
선한 마음도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이다.
어느 추운 날, 서로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한세의 임직원들이 모였다.

한세드림은 2013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추운 날씨를 연탄으로 나는 분들을 돕고, 사랑과 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2019년 11월 15일, 임직원 100여 명이 제7회 봉사활동을 위해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3.5kg 가량의 연탄을 기본 2개 이상씩 들고 나르면서, 찬 기온 속에서도 땀을 흘리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손을 거칠 때마다 따뜻한 마음의 무게가 연탄에 하나 하나 더해지는 듯했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연탄은 한세드림과 소비자가 함께 모은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세드림은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브랜드 공식 SNS에서 '하트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후, 3 명의 친구를 태그하면 사진당 1개의 연탄을 기부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고객과 함께 힘을 모아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행사의 취지, 손쉬운 방법이 강점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의 열띤 참여가 오래 지속되었다. 작은 행동이 큰 나눔의 기쁨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세드림 은수빈 마케팅 팀장은 "매해 한세드림에 보내주신 고객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분들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세드림이 고객분들과 함께 모은 연탄이 추운 겨울철 따스한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맛집 소개

겨울에 먹는 냉면, 얼어 죽을 듯한 날씨에도 기어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족들처럼 겨울에 시원한 냉면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한치한(以寒治寒) 하려는 이들을 이상하게 보겠지만 사실 냉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였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것은 어쩌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근본 있는' 미식 행위가 아닐까.

" KJOLITE !"

헤어날 수 없는 맛, 슴슴함의 매력







1972년부터 시작된 평양냉면 전문점 '정인면옥'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다. 정갈하게 정돈된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한 메밀면수로 속을 달래고 난 뒤 메뉴를 골라보자. 진정성이 느껴지는 육수의 물냉면은 언제나 좋은 선택이다. 쇠고기 아롱사태 육수에 약간의 암퇘지육수를 첨가했다고 하는데, 슴슴한 국물 맛 이 일품이다. 만약 매콤한 맛이 끌리는 날이라면 비빔냉면을 추천 한다. 면은 일반면과 메밀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면은 메밀 80%. 전분 20%의 비율로 만들어져서 쫄깃한 면발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하다. 메밀면은 100% 메밀로 만들어져 툭툭 끊 기는 감은 있으나, 메밀 본연의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냉면으로 배가 차지 않는다면 접시만두나 아롱사태수육을 시켜도 좋다. 속이 꽉 찬 만두는 아삭아삭 씹히는 숙주의 맛이 일품이다. 한 입 베어 물면 신선한 재료로 속을 채웠다는 것도 바로 느낄 수 있다. 수육은 쇠고기에서 소량만 나온다는 특수 부위인 아롱사태를 사 용했다고 한다. 간이 강하지 않아 슴슴한 맛이 특징이다. 저녁 식사 에 술 한잔을 곁들일 땐? 따끈한 수육에 생마늘과 고추, 된장을 살 짝 얹어 술안주로 즐겨보자. 더욱 풍미 깊은 저녁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다. 날이 너무 추워 차가운 냉면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만 둣국이나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 만두전골을 주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그 밖에 암퇘지편육, 한우불고기, 녹두전 등 다양한 메뉴 가 있으니 취향대로 슴슴한 맛을 즐겨보길 바란다.

🕶 한줄평

한세예스24홀딩스 대외협력팀 우지석 주임

1972년부터 쭉 이어진 여의도의 맛집 강재! 화려함은 없 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메뉴로 정갈한 한 끼를 즐겨보자.

동아출판 전략마케팅팀 허도영 사원

고기 육수의 내공은 평양냉면 입문자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다. 숙주의 아삭함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덕에 만 두 맛집으로도 손색없는 곳!

예스24 마케팅본부 마케팅팀 최지원 사원

쏟아지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어지러운 마음, 냉 면으로 깨끗하게 비워내자. 그 담백함과 깔끔함이 입맛 을 사로잡는다. 밑반찬인 무김치에 면을 쌈 싸듯 먹어도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예스24 패션사업본부 기획운영팀 정석헌 사원

자극적인 메뉴 일색인 여의도 식당가에 정인면옥이 있 다는 건 축복! 힐링이 필요한 날이라면 이 슴슴한 육수 에 빠져보자.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기독교침례회총회빌딩 1층

전화번호: 02-2683-2615

영업시간: 11:00 \sim 21:30(15:00 \sim 17:00 Break tim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99

귀찮은 집안일 다시 보는 법

집안일은 왜 항상 하기 싫을까?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몸이 무겁고,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막연히 바깥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책읽아웃'의 진행자 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책을 소개한다. 책장을 덮고 난 뒤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이 따위 레시피라니

줄리언 반스 저 / 공진호 역 | 다산책방



프랑소와엄이 추천하는 책

요리가 주제인 에세이로, 부제는 '줄리언 반스의 부엌 사색'입니다. 저자인 줄리 언 반스는 현대 언어를 공부한 뒤 편집자와 TV 평론가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영 국의 유명 셰프 '마크 힉스'가 쓴 추천사에는 "무엇보다 이 책은 부엌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충고를 담고 있다. 레시피를 따를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 부디 독자 여러분도 부엌에서 일에 대한 좌절 과 즐거움, 기쁨을 완벽하게 담이낸 이 책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 대한 한 가지 불만은 분량이 너무 적다는 것. 이것으론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등의 극찬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제 감상은 예스24 블로그에 '라푼젤'님이 쓰신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설가로서 까칠한 줄리언 반스는 에세이에서도 더욱 강렬하게 까칠하다. 엉성한 레시피들에 대한 그의 풍자는 속이 시원할 정도다. 그가 이토록 요리에 관심이 있었을 줄이야. 나는 요즘 요리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요리 이야기'에 빠져있다. 줄리언 반스가 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와 다른 면모를 발견하면서, 소설가의 타고난 이중성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위의 이야기처럼 요리 자체보다는 요리 이야기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이요. 굳이 요리를 싫어하는데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제 왕 글그림 / 김지은 역 | 비룡소



캘리가 추천하는 책

근대가 시작될 무렵의 파리, 이웃 나라의 왕자가 무도회를 열면서 시내의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드레스메이커인 '프랜시스'는 이 때문에 의상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모녀가 의상실을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의상을 입고 말을 탄 딸 때문에 엄마가 새 드레스를 맞추러 온 것이죠. 프랜시스가 딸에게 어떤 드레스로 만들지 의견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알아서해, 아니 그냥 완전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줘. 악마의 새끼처럼 보이게."

무도회에 딸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양어깨를 까마귀처럼 검은 깃털로 잔뜩 덮은 시스루 드레스 때문이죠. 무도회는 엉망이 되고, 의상실에는 고객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웬 남자가 찾아와서는, 프랜시스를 개인 재봉사로 모셔오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를 따라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착한 프랜시스는 그곳에서 이웃 나라의 왕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드레스를 입는 취미를 가졌고, 이를 비밀로 한다는 걸 알게 되죠. 프랜시스가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를 만들어주자, 왕자는 "나 자신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일관되게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작품이라 좋아요. 또 파도처럼 출렁이는 드레스 그림을 보고 있자면 환상적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라 글그림 | 사계절



불현듯(오은)이 추천하는 책

「고사리 가방」에서 4월이면 제주도에 고사리를 꺾으러 간다던 작가가 겨울에는 귤을 따러 제주도로 향합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귤 사람」에는 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책은 귤 따는 일을 미화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귤을 따는 일이 낭만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일어나 수확하고, 상한 귤을 거르는 등의 가공 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귤이 나무에 열린 장면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노동에 가담하는 순간만큼은 춥고 배고프죠. 이 책의 띠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볕은 따스하다가도 과랑과랑비는 반갑다가도 곱곱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드럽다가도 팡팡 불었겠지." 추운 겨울엔 바깥일보다는 그나마 집안일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고 쓴 저의 감상을 덧붙입니다. 김성라의 「귤 사람」을 읽으며 까먹되. 까먹지 않는 기분이 되었다. 조심조심 껍질 을 까서 잘 익은 과육을 입안에 밀어 넣는 기분이었다가 달고 시고 촉촉한. 다 먹 고 나서도 한동안 울려 퍼지는 이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 깨달았다. 귤을 건넨 사람과 귤을 나눈 사람이, 그리고 귤의 알맹이처럼 여문 기억들이 입천장에 서 단비처럼 쏟아졌다. 페이지마다 귤들이 별처럼 총총 떠 있어서 시종 눈을 홉뜨 고 입을 헤벌릴 수밖에 없었다. — 오은(시인)

'추위에 바깥에서 귤 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밀린 빨래나 하자. 설거지라도 하자'

60 61

눈-귀 호강 공연 & 영화 소개

나를 녹이는 **문화 감성**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언 땅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굳어있던 감성을 꽃피워줄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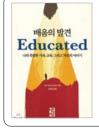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 | 김보영, 박상준, 심완선

역대 SF 거장과 걸작을 집대성한 가이드북으로, 가히 'SF의 시대'라 불릴 만한 지금 놓치면 안 될 책입니다.



김태희 MD의 추천 도서

배움의 발견 |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진정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된 한 소녀의 감동 실화.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선정 2018 올해의 책.



김유리 MD의 추천 도서

여행 말고 한달살기 | 김은덕, 백종민

한달살기만 40번, 여행하며 책 쓰는 부부, 김은덕, 백종민 작가가 전하는 실행 가능한 한달살기 노하우.



김태희 MD의 추천 도서

1일 1클래식 1기쁨 | 클레먼시 버턴힐

하루 한 곡, 240여 명의 음악가와 366곡의 클래식 이야기. 경이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한 해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이다.



<u>박형욱 MD의 추천 도서</u>

고양이 언어학 | 주잔네 쇠츠

언젠가는 고양이와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양이와 평생을 함께해온 음성학 교수의 고양이 언어 해독기



박숙경 MD의 추천 도서

사브리나 SABRINA | 닉 드르나소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녀, 사브리나. 그녀의 실종이 미디어에 발표된 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악몽이 시작된다. 영화감독 박찬욱 강력 추첸!

♬공연



〈영웅본색〉

뮤지컬

2019.12.17~2020.03.22 한전아트센터



〈웃는 남자〉 2020.01.09~2020.03.01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뮤지컬 〈드라큘라〉 2020.02.11~2020.06.07

샤롯데씨어터



뮤지컬 〈케니 지(Kenny G) 월드투어 발렌타인 콘서트〉

2020.02.21 / 2020.02.23 롯데콘서트홀 /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콘서트 **(TWICE WORLD TOUR TWICELIGHTS in Seoul** 'FINALE'>

2020.03.07~2020.03.08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

□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 퀸의 황홀한 해방) 2020.02.05 개봉



작은 아씨들 2020.02.12 개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2020.02.12 개봉



정직한 후보 2020.02.12 개봉



뮬란 2020.03 개봉

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진실이라고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 영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출처 채널예스칼럼 (http://ch.yes24.com/Article/View/40570)

작가 '튀미르'는 엄마이자 대배우인 '파비안느'의 회고록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에 있다고 고백한다. 이 말은 진실일까, 연기일까? 의기소침한 딸에게 파비안느는 덧붙인 서 돌아온다. 그리고 여전히 오만하고 거짓된 엄마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회고록에 는 딸에게 소홀했던 모습이 반대로 묘사되어 있고, 자상한 매니저의 이야기는 없으며, 경쟁자이면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배우 '사라 몽다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정작 사라 의 중요한 배역을 아비한 방식으로 빼앗은 후 상을 수상해. 뤼미르에게 의아심과 상 처를 준 것인데도. 뤼미르는 진실해지라고 추궁하지만, 파비안느는 "배우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도 돼"라고 대꾸한다. 진실은 연기하면 된다는 엄마, 추구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딸. 두 사람은 내내 부딪친다. 매니저 대신 촬영장에서 엄마를 돌보 게 된 딸. 뤼미르는 그곳에서 파비안느를 새롭게 발견한다. 예술가로서 여전히 존재감 을 풍기면서도, 연기를 두려워해 도망치려는 늙은 여성의 이율배반을. 그리고 파비안 풍경을 바라본다. 느는 뤼미르에게 '사라에게 딸을 빼앗긴 심정이었다'는 말과 함께 사라를 잊지 않고 살

다. 2쇄를 찍게 되면 회고록에 진실만 담아 수정하겠다고. 담담한 파비안느의 모습은 진실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보인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은 진실을 다루지 않는다. 진실 탐구로 피곤해지고 예민해진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지 보여준 다. 가족은 어느 정도 연기가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묻는 것처럼 보인다. 진실이 그렇 지막 장면, 집을 나서는 온 가족이 문득 몸을 돌려 집을 향한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겨울의 운치 있는 정원에서. 마치 같은 감독의 영화 (태풍이 지나간 뒤) 속에서 온 가 족이 위를 올려다보듯이. 어떤 마음의 태풍이 지나간 뒤 각자의 집이며 각자의 하늘인 100만 학부모의 선택! 대한민국 대표 초등 국어사전

〈동아 연세 초등 국어사전〉 최신 개정판 출간

《동아 연세 초등 국어사전》의 최신 개정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원에서 편저한 《동아 연세 초등 국어사전》은 누적 판매량 100만 부를 돌파한 동아출판의 스테디셀러로, 교과서 국어사전 찾기 단원을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 필수 준비물'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새 교육 과정에서 중시되는 관용 표현과 속담, 사자성어가 수록되었으며, 유의어 비교, 낱말의 어원, 학습 정보와 상식 등을 별도 네모 상자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헷갈리는 발음 등 더욱 풍성해진 부록을 통해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동아 연세초등 국어사전》에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동아 연세 초등 국어시전〉

상위 4%로 가는 적중률 높은 최신 문제 수록!

1등급 내신 대비 문제서 〈올쏘 내신강자 고등 한국사〉 출간

동아출판이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 한국사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을 반영한 〈올쏘 내신강자 고등 한국사〉는 고등 한국사 빈출 유형을 익히는 본책과 정답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빈출 특강 〉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 상위 4% 문제로 이어지는 '4단계 학습 시스템'이 한국사 내신 1등 급을 완성할 수 있게 차근차근 도와줍니다. 〈올쏘 내신강자 고등 한국사〉는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 및 가까운 서점에서 13,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쏘 내신강자 고등 한국사〉

2권으로 완성하는 7세 학습!

유아 학습서 〈7세 초능력〉 출간

동아출판의 초등 기초 학습 시리즈 〈초능력〉이 유아를 위한 〈기세 초능력〉 교재를 출간하며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기세 초능력〉은 기세의 눈높이에 맞춘 한글·연산·창의력 교재로, 유아 단계에 반드 시 끝내야 하는 학습을 2권으로 완성할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해와 수학의 기초 소양을 기르고, 창의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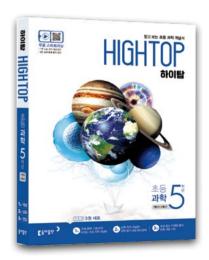
<u>〈7세 초능력〉</u> 덧셈 · 뺄셈



믿고 보는 과학 개념서

〈하이탑〉 초등 과학 출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스테디셀러 (하이탑 시리즈). 초 등학교 5~6학년 대상 (하이탑 초등 과학)이 출시되면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이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믿고 보는 과학 개념서의 명성에 맞게 '초등 하이탑 개념편'은 깊고 풍부한 설명을 녹여냈습니다. 더불어 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비주얼 사이언스 과학 화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심화편'은 창의 서술형 문제 및과학 탐구 대비 문제를 담은 교재로, 영재고나 영재원 선발을 대비하는 폭넓은 과학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강의와 심화 문제 풀이 강의를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탑 초등 과학〉

fruit

봄을 닮은 상큼한 간식

과일 샌드위치

과일 몇 가지로 간단하지만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맛을 낼 수 있어요. 집에서 먹는 간단한 음식으로는 물론 파티에 분위기를 더해주거나 봄나들이 피크닉 용으로도 손색없는 과일 샌드위치.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간식, 함께 만들어볼까요?



recipe

[재료준비]

식빵 4개 딸기 4개 바나나 1개 키위 2개 생크림 200mL 설탕 20g

[레시피]

- 1. 과일을 손질해 준비해 주세요.
- 2.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단단하게 휘핑해 주세요.
- 3. 식빵의 가장자리를 다듬어 줍니다.
- 4. 랩을 깐 도마 위에 식빵을 올려준 후 생크림을 얹어 고르게 발라줍니다.
- 5. 크림 위에 준비해둔 과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생크림을 한 번 더 얹어 과일이 안 보일 정도로 고르게 발라 주세요.
- 6. 나머지 식빵을 얹고 옆면에 흘러나온 크림을 정리해 줍니다.
- 7. 랩으로 단단하게 감싼 다음 냉장고에서 30분~1시간 정도 보관해주세요.
- 8. 다시 꺼낸 다음 칼로 썰어주면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sandwich

유선의 기자의 '독서 취향 테스트'

다섯 번째 '독서 취향 테스트'는 무엇이 옳은지 알기 어려울 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새해가 밝은 후,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도 줄었습니다. 뉴스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싸우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주장하기 전, 겸손을 먼저 건네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구로사와 아키라, 〈라쇼몽〉

〈라쇼몽〉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1915년 작 소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 작 영화가 있습니다. 둘 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추천하는 건 영 화입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폐허가 된 라쇼몽(나생 문) 밑에 승려와 나무꾼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비를 피해온 하인 한 명이 합 세하고, 이들은 한 살인사건과 재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악명 높은 도 적과 그 때문에 죽은 사무라이의 영혼. 사무라이의 아내. 그리고 이들이 싸우는 과정을 목격한 나무꾼은 재판에서 각각 다른 증언을 내놓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거짓말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승려와 나 무꾼은 지옥 같은 인간 세상에 회의를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이들이 '자초지종 을 알게 됐다'며 믿은 것도 사실은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라이와 도적은 모두가 위세 등등하게 싸웠다고 말했으나, 실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졸전이 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죽이려 싸웠던 원수였지만. 그 순간엔 같은 거짓말을 하 게 되죠. 불쌍하게 보였던 아내는 사실 가장 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입장 으로 본다면 독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무녀가 불러낸 죽은 사무라 이의 영혼은 진실을 호소하지만, 영혼이 사무라이인지 또 정말 영혼을 불러내긴 한 건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 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쪽의 입장만 듣고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족으로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라쇼몽〉이 처음 나왔 을 때, 영화사 사장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영화도 아니다'라 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수상하자 돌변하여 극찬합니다. 그러자 구로사와 감독은 "이것이야 말로 라쇼몽 그 자체"라고 말했 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나요? 이오네스코 (대머리 여가수)

대부분의 대머리는 남자입니다. 여기에 여가수를 이어 붙인 제목 자체가 사실은 모순일 수 있어요. 극작가 이오네스코의 첫 희곡인 (대머리 여가수)는 이런 제목 과 같은 상황. 이른바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쇼몽〉에 비해 내 용은 단순한 편입니다. 런던에 사는 스미스 부부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대화 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무의미하게 이어지기만 할 뿐, 내용이 연결 되진 않습니다. 부인은 식사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엉뚱한 소리 를 하지요. 대화 중에 '바비'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듣다 보면 서로 다른 '바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메리 부부가 합류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 사이임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익숙한 얼굴이라며 인사를 합 니다. 그리고 과거를 향한 황당한 추적을 시작하다가, 눈동자의 색깔을 보고 같 은 딸을 키우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부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 로를 '셜록 홈즈'라고 부르는 하녀 메리는 두 사람이 말하는 딸이 다른 사람이라 고 주장하지요. 결국 이들은 마지막에 다 같이 "그쪽 아냐. 이쪽이야. 그쪽 아냐. 이쪽이야, 그쪽 아냐, 이쪽이야!"를 외칩니다. 이들을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통의 문제는 항상 있어왔지만, 요즘은 부쩍 그 벽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인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이보다 나은지 자신하기 어려운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제가 〈라쇼몽〉 과 〈대머리 여가수〉 두 추천작을 붙여놓은 건 이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라쇼몽〉같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국 진정한 해결책은 소통뿐이 라는 걸, 저는 〈대머리 여가수〉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토 요일, 주말의 명화로 〈라쇼몽〉 먼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 대머리 여가수)를 읽어보시면 괜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자동차. **어떤 걸 선택할까?**

지난해 기준, 국내에는 2,368만 대의 자동차가 보급됐다.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필수품이 됐다. 이 거대한 자동차 시장에도 트렌드가 있음은 당연지사. 수많은 차량 사이에서 시대와 유행에 맞는 차를 고르고 싶다면, 2020 자동차 트렌드를 주목하자.

TREND NO.1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지금은 공유가 대세라고 불릴 정도로 공유 경제가 빛을 보기 시작한 시대다. 자동 차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 개념이 사라지고 '무슨 차를 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조금 비싸도 '수입차', 나이가 '슈퍼카'와 같 은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강남 지역에 등록되는 자동차 2대 중 1대가 수입차라는 게 이를 입증해 준다. 과거에는 내 돈 주고 살 엄두도 못 냈던 고가의 차량을 이제는 공유라는 플랫폼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다. 이는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려는 '가심 비 쪽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첫 차로 꼽히던 경차 시장이 축소되고, 고가의 수입차 시장이 확대된 저변에도 '공유'라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한몫을 했다. 이 제는 비싼 차를 장소와 기분에 따라 바꿔 타는 시대가 온 것이다.

TREND NO.2 전기차냐 수소차냐

휴대폰 같은 IT 기기의 얼리어답터의 관심은 친환경 차에 쏠린다. 라디에이터 그릴 이 막혀 있고 날렵하지만,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차. 새로운 트렌드를 원하는 소비 자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자동차다. 이미 국내에서는 420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가 팔려나갔다. 모델 면에서도 소형차부터 SUV 초대형 세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 축하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친환경 자동차의 트렌드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비싼 가격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

TREND NO.3

남과 다른 나만의 스타일

2020년 자동차 트렌드의 중심에는 '픽업트럭'이 있다. 그 거대한 외면 때문에 '저 런 차를 어디다 주차해' 할 정도로 무식해 보일 때도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인 건 분명하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픽업트럭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수입 픽업 트럭들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다. 정통 아메리카 머슬 트럭부터 다용도 픽업트 럭까지, 욜로를 즐기는 트렌드 세터들에겐 이만한 재미가 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차는 옵션이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고르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외관 즉, 생김새다. 또 같이 타는 동승자에게 '보여주기'의 일종인 실내 사양도 무시 못 하는 하나의 선 택지다. 그래서인지 완성차 업체들은 갖가지 옵션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한 다. 차량 내부에 무드등 같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신기했던 시대는 지 나갔다. 여자친구와 스마트폰으로 키를 공유해 차량을 나눠 타고, 차량 내 블랙박 스로 사진을 찍는 시대가 왔다. 여기에 자율주행은 덤이다. 이제는 '깜빡이'만 켜 도 자동차가 혼자서 차선을 바꾼다. 꿈처럼 느껴지던 자동차를 지금 당장이라도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

2020 자동차 트렌드 모두를 조합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선택하라면 단연 '무슨 색의 차를 살까'가 아닐까 싶다. 2020년 올해의 자동차 컬러로는 '클래식 블루'가 선정됐다.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갈 수 없다면 올해는 '클래식 블루' 색깔의 자동 차를 타보는 건 어떨까.







레스토랑 메뉴판 암호 풀기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에서 생소한 단어를 보고 식은땀을 흘리신 적 있나요?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겁먹고 늘 익숙한 음식만 주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소한 잡학 지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Fine-Dining 좀 즐기는 척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용어! 함께 알아볼까요?



텐더로인(Tenderloin): 안심 부위, 운동을 하지 않은 부위를 일컬음, 보통 10cm 안팎의 가스파초(Gazpacho): 안달루시아 지방 요리로, 젖은 빵이라는 뜻이다. 각종 채소와 마늘 두께로 구워낸다.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 불리기도 하지만, 쇠고기 특유의 육즙이 풍부한 모마토, 콩 등을 잘게 썰거나 갈아서 물에 부은 후 식빵을 담궈 차게 해서 먹는 수프 요리 맛은 덜 느껴진다.

뼈에 붙어 있는 중심 부분 살을 뜻한다.

뉴욕 스트립(New York strip): 채끝살이라고 부르는 부위로, 고기를 자른 단면이 뉴욕 깔라마레스(Calalmares): 오징어 링 튀김. 지도와 닮은 모양이다.

티본 or 포터하우스(T-bone or Poterhouse): 뉴욕 스트립, 텐더로인이 나란히 붙어있 어 두 가지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스테이크, 대개 텐더로인이 많은 건 티본, 뉴욕 스트립이 많은 건 포터하우스라고 한다.

#2 이탈리안 요리

라비올리(Ravioli): 파스타의 일종이지만, 이탈리아 만두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스타 반죽 에 치즈,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속 재료를 채워 만든다.

카르파치오(Carpaccio): 이탈리아 버전 육회. 날 것의 소고기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그 위에 소스를 뿌려 먹는다. 본래 소고기로 만들지만 오늘날에는 양고기, 생선 등도 사용 된다. 훈제한 식재료로 만든 것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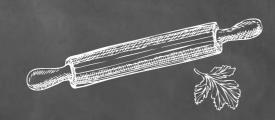
비노(Vino): 와인을 뜻한다. 특별히 선호하는 와인이 없다면 하우스 와인을 시키도록 하 자. 하우스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비노델라 카자(Vino Della Casa)'라고 한다. 레드는 로 소(Rosso), 화이트는 비안코(Bianco)라는 걸 기억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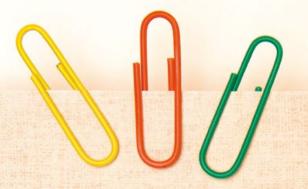
#3 스페인 요리

아로스(Arros): 쌀이 주재료인 밥요리. '아로스 네그로(Arros negro)'는 검은 쌀 요리로 오 립 O∤O|(Rib Eye): 등심 부위, 꽃등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보통 소의 6~12번째 갈비 ○ 징어 먹물을 소스로 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흰 살 생선을 곁들여서 만드는 쌀 요리는 '아로스 반다(Arros Banda)'라고 한다.

몽블랑(Mont Blanc): 알프스 산봉우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디저트로, "하얀 산"이란 뜻 이다. 일반적으로 달달한 밤 크림을 올린 케이크를 의미한다.

다쿠아즈(Dacquoise):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랭 과자. 머랭으로 만드는 건 마카롱과 동 일하나, 반죽 과정인 마카로나주를 거치지 않고, 만든 후에 슈가파우더를 뿌린다는 점이 차이! 식감은 마카롱보다 부드럽고 폭신하다.





우리말 바로 쓰기

'상가 추태'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일까?

겹말의 두 얼굴

'겹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겹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상갓집, 처갓집, 고목나무, 전기누전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겹말]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역전앞 철교다리, 족발 모 래사장 따위처럼 뜻이 같은 말이 겹쳐 있는 말을 뜻한다. 한자말로 '첩어(疊語)'라고 하는데 습 관적으로 쓰다가 굳어진 말들이다. 겹말은 주로 한자나 외국어와 순우리말이 조합된 경우가 많다. 굳이 뜻이 통하지도 않는 외국어나 한자말로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못미더워 우리말로 토를 다는 격이다. '역전앞'은 '역 앞'으로, '돼지족발'은 '돼지발'로 써야 하는데, 해당되는 한지말 을 하나씩 없애면 뜻이 분명하게 살아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겹말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 말 풀이사전, 박남일)

얼마 전 상갓집에서 생긴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의 다툼을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면서 주요 언론들도 '상갓집'이라는 표현을 썼죠. 해당 언론사에 겹말에 예민한 교열 기자가 있었다면 아마 수정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전적으론 겹말은 고쳐야 할 표현 대접을 받고 있지만, 처갓집, 상갓집, 해변가, 술주정 같은 단어들은 표준어로 인정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가(妻家), 상가(喪家), 해변(海邊), 주정(酒酊)에 이미 집이나 가, 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앞뒤에 붙는 말들은 의미없이 붙은 말입니다. 하지만 언중(言衆)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받는 것이죠.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보면, 상갓집과 초가집은 "기존의 단어 구성에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고유어 성분을 덧붙이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승(捕繩)과 포승줄도 같은 맥락이지요. 사실 상갓집을 상가(喪家)라고 고쳐 쓰면 맛이 살지 않죠. 직접 말할 땐 가게 를 뜻하는 상가(商街)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규정한 '상갓집 추태'를 '상가 추태'라고 써야 한다면, 과연 추태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앞뒤 문맥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겹말은 같은 뜻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언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지만, 역설적이게도 맥락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Spring。 Vol。Twenty-two

한세일보



동아출판 〈초능력 시리즈〉 TV 광고 런칭!











12월 9일, 동아출판은 초등학생의 기초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초능력 시리즈〉 TV 광고를 런칭했다. 이번 광고에는 '초능력쌤 동영상으로 제대로 키우자란 카피를 통해 〈초능력 시리즈〉로 기초 학습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초능력 시리즈〉는 18년 11월 국어 독해와 수학 연산 출간 이후로 꾸준히 신간을 출시하여, 기초학습서에서 전 과목을 아우르는 최다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번 광고 런칭을 기념하여 홈페이지에서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광고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증정하는 1차 이벤트와 2차 초성 퀴즈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세드림, 한국청소년연맹 의류 후원 감사패 전달식

한세드림은 1월 16일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 와 함께 의류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한세드림은 CSR 활동의 일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수단 아이들을 위해 총 20억 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세드림 윤종선 상무, 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양철승 사무총 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임흥세 감독이 남수단 교육부장관 명의의 감사 패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한세드림 경영지원본부 윤종선 상무는 "이 번에 기부된 의류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세드림은 이번 남수단 아동 의류 후원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전국 학교·학원가를 달리는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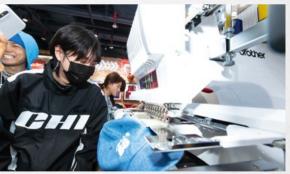




동아출판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가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 학교·학원가에 버스 광고를 진행 중이다.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는 〈비문학 독해〉부터 〈문학 독해〉,〈어휘〉,〈문법〉,〈서술형 쓰기〉까지 국어 영역의 빠짐없는 라인업을 갖춘 교재로 많은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작 시리즈를 알리고자 기획된 이번 광고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돼 올해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양한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인 빠작 시리즈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세엠케이 NBA,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월드몰점 오픈 '나플라·루피·블루' 게릴라 방문!





인기 힙합 뮤지션 나플라, 루피, 블루가 서울 잠실에 위치한 NBA 롯데월드몰점을 방문했다. 세 사람은 NBA 마니아존에서 오픈 기념 촬영을 한 후, 매장에서 직접 고른 옷에 이니셜 자수와 와펜을 장식하는 등 자신만의 개성을 더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NBA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이들의 방문 소식에 현장 일대는 팬은 물론 많은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방문 매장에 대해 NBA 마케팅 관계자는 "NBA 롯데월드몰점은 브랜드 고유의 DNA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진 만큼 NBA 팬과 스트릿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72 **73**







ANDEW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T184DW020P

TBJ nearby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위를 녹인 '패딩'은 앤듀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때 각국 정상과 배우자에게 제공된 점퍼는 앤듀(ANDEW)의 '셀포스 다운 점퍼'로, 정부에서 직접 마련해 화제가 되었다. 행사 운영 요원들에게는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의 '뽀송이 롱다운 점퍼'가 제공됐다. 한세엠케이 앤듀 관계자는 "이번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영부인, 행사 운영 요원들을 위한 선물로 한세엠케이 제품이 제공된 것은 굉장한 영광"이라며, "25년의 업력을 가진 토종 패션 기업의 제품으로, 대한민국 패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9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 성료

모이몰른이 12월 14일 서울 을지로에서 개최한 '제9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는 부부가 함께 리스, 화관, 테라리움 등 식물을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 보는 자리로, 육아 중인 부부와 예비 부부를 위한 이벤트다. 11월 18일에서 12월 1일까지 진행된 응모 기간 동안 총 533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모델 이현이와 보타닉 에이치 김한나 대표가 함께해 화관과 미니 부케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특별한 추억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화관과 부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신혼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즐겼다.















YES24 LIVEHALL

YNK MEDIA

iSTYLE24